

광주세계수영

2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26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6일 22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8	2	1	11
2	러시아	4	2	0	6
3	우크라이나	1	0	2	3
4	독일	1	0	1	2
5	헝가리	1	0	0	1
6	이탈리아	0	2	1	3
6	미국	0	2	1	3
8	프랑스	0	2	0	2
9	멕시코	0	1	3	4
10	영국	0	1	1	2
15	대한민국	0	0	1	1



구기종목인 만큼 수구에도 볼보이가 있다. 16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도중 볼보이(오른쪽)가 아웃된 공을 잡아 심판에게 전달하고 있다. 광주 | 뉴시스

수구에도 '볼보이' 있다

서울체고 수구팀 자원봉사 나서
아웃볼 향해 수십 번씩 물속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16일 22시 현재)의 유일한 구기 종목인 수구는 선수들의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한 번이라도 경기를 직접 보게 되면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수구에도 축구나 야구, 테니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보이'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웃라인이 적용돼 있는 구기 종목에서 아웃된 공을 가지러 뛰어가는 볼보이는 우리가 자주 접했지만 수영장 끝에 각각 1명씩 2명의 볼보이가 물에 뛰어들어 수영으로 공을 가져오는 모습은 생소하기만 하다. 8분씩 4쿼터로 진행되는 경기시간 내내 공이 아웃될 때마다 수십 번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선수 못지않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서울체고 수구팀이 이처럼 선수를 못지않게 많은 체력을 소모하며 수구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수영대회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체고 학생은 조성우, 이화섭, 김선래, 배원빈, 오경민, 박정우, 최정근, 권태우, 정승기, 김중훈, 박하민 군으로 모두 11명. 보통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9시35분에 끝나는 현재 수구 예선 일정에 맞춰 이들의 일정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수구경기장에 머물며 보조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주장 조성우 군은 "사실 공이 대기하는 자리 반대편 쪽으로 떨어지면 왔다갔다 40m를 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수영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서울체고 수구팀은 올해 국내 고등부 경기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거머쥔 강팀. 서울체고 수구팀은 국내 고등부 최강자로 만든 사람들 정찬혁 코치다. 정 서울체고 수구팀 코치는 "세계대회를 국내에서 보는 것이 쉽지 않아 어린 선수들이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광주 | 강신 기자 do02@donga.com

한국 여자수구, 러시아에 1-30 패배, 그러나 의미있는 이정표 세웠다

역사적인 첫 골 '40일의 기적'

〈한국 여자수구 세계선수권 첫 골〉



한국 여자 수구대표팀의 경다슬이 16일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별리그 러시아전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 여자 수구의 사상 첫 세계대회 골이었다. 경다슬의 골 이후 벤치 앞에서 모여 감격을 나누는 선수들(작은 사진). 광주 | 뉴시스

대회 40여일 앞두고 첫 훈련한 걸음에 대표팀 18세 경다슬, 4쿼터서 강호 러시아 골망 갈라 유효슈팅 20차례...헝가리전때보다 좋은 경기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힘찬 첫발을 내디딘 한국 여자수구 대표팀이 두 번째 경기에서 사상 첫 골을 만들어냈다.

대표팀은 16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B조 조별리그 2차전 러시아전에서 1-30(0-7 0-9 0-8 1-6)으로 패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헝가리와 1차전(0-64 패배)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지만, 사상 첫 골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러시아전은 대표팀의 두 번째 공식경기였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남녀 수구 출전권을 획득했는데, 여자대표팀의 경우 이번 대회에 앞서 처음 결성됐을 정도로 경험이 적다. 처음 훈련을 시작한 시점도 이번 대회를 40여일 앞둔 6월 2일이다. 반면 러시아는 2017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강팀이다. 애초부터 체급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였던 셈이다.

대표팀은 3쿼터까지 0-24로 끌려가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첫 골이라는 목표도 다음으로 미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4쿼터 3분44초께 기다리던 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경다슬(18·강원체육고)이었다. 상대 골대 오른쪽에서 수비를 뚫고 던진 슈팅이 골망을 갈랐다. 대한민국 여자 수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완성한 순간이었다. 경다슬은 "은 힘을 다했다. 우리가 다시는 못 될 경기고, 좋은 자리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들어갔다"며 "이제 첫 골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다른 친구들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기뻐했다.

경기에서 패했지만, 총 20차례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등 헝가리전과 견줘 나아진 움직임은 선보였다는 점도 위안거리였다. 흥인지 대표팀 코치는 "정말 좋았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다. 개인적으로 운동하다가 단체 종목을 하는데도 금방 하나로 뭉쳤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팀은 18일 오후 7시10분 캐나다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캐나다는 러시아(10-18)~헝가리(14-15)와 1, 2차전을 모두 패하며 2패를 기록 중이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다이빙의 선전, 한국 수영 미래를 밝히다

개막 전엔 '남의 잔치' 우려했지만
스프링보드 김수지 銅·우하람 4위
싱크로나이즈드서도 당당히 결선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내의 많은 체육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완전한 '남의 잔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였다.

월드컵과 동·하계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 세계사격선수권 등 수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쌓인 노하우로 인프라 준비와 운영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성적은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영과 육상 등 기초종목에 약하다. 실력어 검증된 '마린보이' 박태환(30)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해

자칫 '노 메달'로 대회를 마칠 수 있다는 어두운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1973년 초대 대회부터 이전까지 개최국의 노 메달은 3번에 불과했다.

역대 4번째 개최국 노 메달을 걱정하며 막이 올린 대회, 크게 기대 못한 다이빙이 큰일을 냈다. 김수지(21·울산광역시청)가 1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57.20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하람(21·국민체육진흥공단)도 14일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선에서 1~6차 시기 합계 406.15점으로 4위를 찍어 시상대에 근접했다. "우리가 세계수준에 근접했다"는 우하람의 당당한 선언에서 강한 자신감이 묻어나왔다.

동생들의 활약에 자극을 받은 언니, 누나도 힘을 냈다. 조은비(24·인천광역시청)와

문나윤(22·제주도청)도 14일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에서 1~5차 시기 합계 261.12점으로 톱10(10위)에 진입했다. 결선에서 경쟁한 루마니아와 독일을 제치며 내일의 희망을 예고했다.

15일에도 선전은 이어졌다. 조은비-김수지 조는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에서 사상 첫 결선 진출(12위)의 쾌거를 일궈고, 우하람-김영남(23·국민체육진흥공단) 조는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에서 4회 연속 세계선수권 결선에 진출한데 이어 역대 타이인 6위에 올랐다. 16일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

이제 마음 편히 즐길 일만 남았다. 이미 우리의 잔치다. 현장에서 만난 많은 수영인들은 "세계선수권은 올림픽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듯 조금씩 격차를 좁히다 보면 강국이 된다. 광주대회가 우리에게 큰 꿈을 안겨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

'작은 지구촌' 선수촌 라이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내에 마련된 게임룸. 광주 | 뉴시스

생활 가전·콘돔까지 비치 네일숍·가상현실 체험장도 하루 10톤 육류·생선 공수 오후 5시부터는 문화축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12~28일), 각종 선수단이 여장을 풀 보급자리는 챔피언십 빌리지(선수촌)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9만 4000여㎡ 부지에 25개동으로 지어진 이곳은 옛 송정주공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1660세대 6000여명(미디어빌리지 포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80여명의 태극전사·남자들을 포함한 역대 최대규모인 194개국, 선수 2537명의 대다수가 이곳에서 생활한다. 선수를 가운데 극히 일부만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시내 호텔에서 머물다 보니 챔피언십 빌리지는 작은 지구촌으로 바뀐다. "피가 끓는 청춘들이 모인 곳이라 늘 유행하고 떠들썩하다"는 것이 대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여느 국제 스포츠 이벤트처럼 수영선수촌에서도 훈련 및 경기 등 공식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전 세계의 선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당연히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시설과 별개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챔피언십 빌리지를 조성하는 작업이었다.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에어컨과 냉방고, 전화, 전기포트, 책상과 의자 등 생활 가전제품은 물론 포근한 이부자리를 마련했다. 올림픽 때마다 등장하는 무료 콘서트도 각종 1층 출입구에 비치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단지 내 카페와 편의점, 은행, 피트니스센터, 우체국, 세탁시설, 미용실도 부족해 네일아트숍까지 들어섰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장과 컴퓨터 게임 룸, 탁구·양구장도 선수들이 즐겨 찾는 구역이다. 선수촌 국가광장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한국과 광주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선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센터도 있다.

식단도 알차게 구성했다. 하루 10여톤이 넘는 신선한 육류와 채소, 생선을 사용한 영양만점의 다양한 메뉴가 각국 선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다. 최정상 선수촌장은 "잘 먹고, 잘 쉬어야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대회다. 경쟁은 경기장에서만 이뤄진다. 모쪼록 선수단이 행복한 기억과 추억만을 가슴에 안고 떠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광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우하람과 김영남이 15일 광주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10m 플랫폼 싱크로나이즈드 결선에서 공중 동무를 펼치고 있다. 광주 | 뉴시스